

디모데전서 2장 난제(難題) 연구

이 진 섭 / 신약학

들어가는 말

디모데전서 2장은 평이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슈로 얹혀 있다.¹⁾ 어려운 이슈는 네 가지 주제, 즉 1) 중보기도의 성격(2:1-2), 2)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의미(2:4, 6), 3) 여성 사역 금지 여부(2:11-12), 4) 해산과 구원 사이의 연관성(2:15)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학적 주제가 아니라 신자의 실제 삶과 사역에 직접 연관 된 주제들이다.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이론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적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나? 권력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국가와 정권에 감사하며 지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구원 받는가?

1) 예컨대, Stott(『디모데전서』, p. 95)는 2:8-15이 목회서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교회의 여성 사역자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해산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신앙생활 가까이 그리고 넓은 영역에 펼쳐져 있지만,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는 그렇게 뉙룩치 않다. 자연히 그에 대한 답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제시된다. 때론 그 답이 침례하게 대립되는 경우(특별히 구원론과 여성 사역의 경우)도 있고,²⁾ 아예 해결의 실마리조차 잘 잡지 못하는 경우(해산과 구원의 관계성의 경우)도 있다.

본고는 이런 여러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네 가지 난제를 본문의 역사적 상황과 본문 내외(內外)의 문맥 흐름에 비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1) 먼저 이러한 난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규명하고, 2) 2장의 주제와 문단 구성에 대해 논의한 후, 3) 역사적 배경과 본문의 문맥 흐름에 비추어 이 난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1. 난제 네 가지

1.1. 중보 기도의 성격(2:1-2)

난제를 해결하려면 디모데전서 2장의 난제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이해하려할 때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1-2절에 등장하는 기도의 성격 문제이다. 저자는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그와는 약간 다르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한다.³⁾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등장한다. 첫째, 저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권면했는지, 아니면 ‘권력자와 국가를 위한 기도’를 권면했는지, 아니면 두 가지 기도를 다 권면했는지부터 헷갈린다. 1절과 2절의 기도권면에 약간 차이가 있어

2) 특별히 여성 사역의 이슈는 현대 교회에 침례한 논쟁과 대립을 일으킨다.

3)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는 제한한다. 본고에서는 저자와 바울을 동일시하여 번갈아 사용한다.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라면, 모든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호하다. 세상 모든 사람인지, 한 도시나 어떤 지역의 모든 사람인지 불확실하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하는지도 난감하다. 일일이 사람을 거론해야 하는지, 그룹으로 언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기도 대상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⁴⁾ 셋째, 이 권면이 ‘권력자와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정책과 권력자의 지도력을 지지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인지, 나라의 번영과 정치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대의 정권을 지지해주거나 특정 성향의 정치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1세기 로마제국 당시 황제와 권력자들의 통치를 지지하고, 로마제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일 수 있나? 예컨대, 허영심 많고 잔인한 지도자였던 네로 황제와 그의 제국을 위해 지지하는 기도를 권면하는 말일 수 있는가?⁵⁾ 더 나아가, 한국 현대사에 종종 볼 수 있는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의 근거 본문이 될 수 있나?⁶⁾ 결국, 문제의 핵심은 1-2절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성격을 규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1.2. 모든 사람의 구원(2:4,6)

두 번째 어려움은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6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2:1-10에는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네 번(2:1, 2, 4, 6) 등장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이 언급된다(2:4).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된다

4) 주석서에는 이러한 문제나 어려움을 잘 언급하지 않지만, 교회 현장에선 이런 중보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설명하기 힘들다.

5)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면 이 중보기도의 권면을 네로 황제 통치 시절과 관련하여 볼 수 있고, 만일 디모데전서가 바울 사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쓰인 서신이라면 이 권면은 1~2세기 로마제국의 교회 꾸박 분위기와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다.

6) 대통령에 당선된 이들은 종종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찾고, 종교지도자들은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책을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2:5-6). 이런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의문이 제시된다. 첫째, 저자가 누구의 구원을 염두에 두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적 주장이나 이방인을 배제시키는 유대주주의적 주장에 반대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인지,⁷⁾ 아니면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보편구원론’을 말한 것인지,⁸⁾ 그것도 아니라면 ‘선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선택구원론’을 말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선택된 자만 구원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속죄를 위함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보편속죄’의 이해가 있는가 하면, 예수는 결국 믿는 신자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제한속죄’의 이해도 있다. 전자는 종종 ‘보편구원론’과 연결되어 설명되고, 후자는 종종 ‘선택구원론’과 관련되어 서술되기도 한다.⁹⁾ 또한 본문이 보편속죄나 제한속죄를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¹⁰⁾ 분명한건, 구원 받는 대상의 범위와, 구원을 이루는 구속의 효과 범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3. 여성 사역 가부 여부(2:11-12)

세 번째 난제는 여성사역의 가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 구절은 종종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본문으로 이해된다.¹¹⁾ 8-15절은

7) 참조. Spicq, *Les Épîtres Pastorales*, vol. 1, p. 356; Lock, *Pastoral Epistles*, p. 23.

8) 2:4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언급하고 있기에 이 구절에서 보편구원론 논의가 종종 일어난다.

9)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Stott, 「디모데전서」, pp. 80-84를 참조하라.

10) 참조. Mounce, 「목회서신」, p. 329. Stott(「디모데전서」, p. 84)는 본문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 상반되어 보이는 양쪽 견해 모두를 긍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11) 대표적으로 Hendriksen, 「목회서신」, pp. 151-52을 보라. 이 구절은 보통 한국 개신교에서 여성사역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사용되며, 사실, 한국교회 목회현장에는 이런 분위기가 넓게 퍼져있는 듯 보인다.

교회 예배와 관련된 문단으로 보통 이해되는데 11-12절이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서신에 여성의 가르침 사역을 인정하는 것 같은 본문이 있을 뿐 아니라(예컨대, 롬 16:7; 고전 11:4-5 등),¹²⁾ 그 외 신약성경에도 여성의 가르침 사역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에(행 18:24-28; 행 21:9)¹³⁾ 디모데전서 2:11-12을 여성 사역 금지 본문으로 보는 데에 어려움이 등장한다.

자연히 이 본문의 금지 권고가 사실상 여성의 가르침 사역 금지가 아니라고 보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이 시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방향은 이 본문 자체가 특별한 이유로 여성 사역을 제한하긴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여성의 가르침 사역을 근본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성 사역 금지가 개인적 의견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견해(의견설),¹⁴⁾ 예배소교회의 문화 상황에 대처하려는 특별 조치라는 견해(문화설),¹⁵⁾ 예배소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 일부 여자들에게만 준 권면이라는 견해(부분설) 등이 이런 입장에 있다.¹⁶⁾ (물론 이 입장들은 서로 겹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12) 롬 16:7의 유니아를 여성 사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도’의 의미가 어떠나에 따라 그 의미의 비중이 달라지길 하지만, 사역자로 이해되는 점은 피하기 힘들다. 참조. Moo, 「로마서」, pp. 1231-33. 또한 고전 11:4-5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언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여자의 예언 사역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13) 예배소교회에 있던 여성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쳤다(행 18:24-28). 물론 이것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사했던 경우라면 그런 사역이 교회에서의 공적 가르침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교회가 가정집교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구별과 차이는 협소해진다. 또한 가이사랴에 있던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은 예언하는 자들이었다(행 21:8-9).

14) 참조. Fee, *Timothy*, p. 77.

15) Hanson, *The Pastoral Letters*, p. 38; Barclay, *Timothy*, p. 68; Fee, *Timothy*, pp. 70, 77. 이 견해는 현대의 여러 해석자들에게 선호된다. 예컨대, Fee는 아데미여신을 섭기는 추접한 의식에 영향 받는 여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16) 부분설은 문화설의 한 카테고리로 특정 문화 상황에서 영향 받는 어떤 여자를 그룹에 해당된 권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Fee, *Timothy*, pp. 70, 77; R. Kroeger and C. Kroeger, *Rethinking 1 Timothy 2:11-15*, pp. 54, 80-83. Kroeger는 딤전 2:11-15의 권면이 아데미 숭배 분위기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여자들

입장은 이 본문의 과급효과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한다는 의심을 종종 받는다.

또 다른 방향은 이 본문 자체가 여성의 가르치는 사역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자들의 가르침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견해가 있고(주관금지설),¹⁷⁾ 또한 이 권면이 여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아내들에게 준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아내설).¹⁸⁾ 전자는 본문의 금지 내용을 달리 본 해석이라면, 후자는 금지 주체의 대상을 달리 판단한 해석이다. 그런데 주관금지설과 아내설은 디모데전서 2:8-12이 교회의 공적예배를 다룬다고 보는 시각에 부딪혀 쉽게 무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견해와 논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 이 본문이 여성의 가르침 사역을 금지한다고 보기엔 그리 쉽지 않음을 또한 알려준다. 과연 이 본문은 여성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

1.4. 여자의 해산과 구원(2:15)

마지막 난제는 15절의 해산과 구원의 이야기이다. 2장의 마지막 구절은 생뚱맞은 듯 ‘해산’과 ‘구원’의 연관성을 언급한다. 개역개정은 이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 구절은 위낙 뜻이 모호해서, 그 해석이 큰 논쟁으로 점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절의 해석이 갈 방향을 잊게 되어, 결국 모호함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하와 사건으로 말미암은 해산의 고통 증가가 감면되거나, 해산 때 안전하게 될 것을 뜻한다는 시각이 있지만,¹⁹⁾ ‘구원’이란 단어를 목회서신에서 육체적인

그룹을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7) 참조. Ellicott, *The Pastoral Epistles*, p. 127; Fairbairn, *Pastoral Epistles*, p. 127.

18) Prohl, *Women in the Church*, pp. 31-32; Barrett, *The Pastoral Epistles*, pp. 55-56; Powers, ‘The Application of 1 Timothy 2:8-15,’ pp. 55-59. Stott([디모데 전서], p. 111)에 따르면 루터도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위험의 감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에베소교회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예컨대 결혼을 금했던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참조. 딤전 4:3),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일의 중요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려는 시각(즉 어머니의 역할과 구원의 관련성을 설명한 것)도 있지만,²⁰⁾ 자녀 양육, 특히 해산을 구원과 연결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아예 이 구절에 등장한 ‘그 해산으로’(διὰ πᾶς τεκνογονίας, ‘디아 테스 테크노고니아스’)라는 표현을 근거로 15절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킨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이 입장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곧 그리스도가 되기에 전통적인 바울 사상과의 거리감은 줄어든다.),²¹⁾ 이 구절의 ‘그 해산’에서 그리스도를 연상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나 증거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자연히 15절의 해석 문제는 미궁에 빠진 난제 중의 난제(難題)로 남는다.

2. 주제와 문단

이러한 네 가지 난제는 언뜻 보면 서로 연관되지 않은 독립된 문제와 이슈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네 가지 문제가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둘째 이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권면(첫째 이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해산과 구원의 문제(넷째 이슈)는 큰 틀에서 볼 때 여성사역 논의 본문(셋째 이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2:9의 ‘이와 같아’라는 접속사는 셋째-넷째 이슈가 첫째-둘째 이슈와 그리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각 난제가 이렇게 직간접적

19) Moule, *Idiom Book*, p. 56; Barron, ‘Putting Women,’ p. 457; Keener, *Paul, Women, and Wives*, pp. 118-19.

20) 참조. Jebb, ‘1 Tim 2:15,’ pp. 221-22.

21) Jewett, *Man as Male and Female*, p. 60; Guthrie, *The Pastoral Epistles*, pp. 89-90; Williams, *The Apostle Paul and Women*, p. 113; Payne, ‘Libertarian Women in Ephesus,’ pp. 177-78; Knight, ‘1Timothy 2:12,’ pp. 146-47; Stott, 「디모데전서」, pp. 114-15.

연관성을 띠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2장의 주제와 논리 흐름 안에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히 이 네 가지 난제를 푸는 일 또한 2장 전체의 주제와 구성과 논리 흐름 안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2장 전체의 주제와 구성과 문단 이해에 놓치지 말고 관찰할 점은 2장에 있는 여러 내용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세 개의 논리연결어, 즉 1절과 8절의 ‘그러므로’(οὖν, ‘운’)와 2:9의 ‘이와 같이’(ὅμοιως, ‘호사우토스’)의 역할이다. 이 연결어가 세부 문단을 어떻게 연결하여 본문을 구성하는지, 또한 어떤 논리로 주제를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해야 각각의 이슈와 난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자연히 다음 과제는 이 논리연결어로 2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주제와 문단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2.1. 디모데전서 2:1-7과 2:8-15

대체적으로 해석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이 교회의 문제나 공중예배의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하며, 1-7절과 8-15절로 나뉘어 쓰였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해석자에 따라 시각의 각도나 설명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틀은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듯 보인다. 전통적으로는 (예컨대, Hendriksen, Stott는) 1-7절이 공중예배에서의 기도 주제를 다루고, 8-15절은 공중예배에서의 남자와 여자 모습이란 주제를 다룬다고 본다.²²⁾ 타우너(P. H. Towner)는 1:3-3:16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구성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특히 2:1-7이 기도 지침을 말하고, 2:8-15이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고 생각한다.²³⁾ 공중예배라는 주제로 2장을 뭍어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2장을 1-7절과 8-15절로 나누는 점이나 각 문단을 ‘기도’와 ‘남녀’ 지침으로 보는 관점은 유지된다. 반면 마샬(I. H. Marshall)은 1:3-3:16을 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틀로 보면서 2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

22) Hendriksen, 「목회서신」, pp. 125, 127, 143; Stott, 「디모데전서」, pp. 73-75, 94-95.

23) Towner, *Timothy*, pp. ix-x, 162-65, 190-91.

고 판단한다. 1-7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8-15절은 남자와 여자의 기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본다.²⁴⁾ 마운스(W. D. Mounce)는 2:1-4:5을 ‘에베소교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교정’ 내용으로 보면서, 2:1-7에는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고(Mounce에게 있어 1-7절은 ‘기도’의 주제가 아니라 ‘구원’의 주제이다),²⁵⁾ 2:8-15에는 교회의 ‘혼란과 지도권의 문제’가 거론된다고 생각한다.²⁶⁾

이렇게 2장을 1-7절과 8-15절의 두 문단 구성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이다. 첫째, 1-7절은 ‘모든 사람’이란 내용으로 뚜이는 공통점이 있고, 8-15절은 남자와 여자라는 짹의 대비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자는 ‘모든 사람’의 기도나 구원의 문제이고, 후자는 ‘남녀’의 모습과 역할의 대칭 구조가 두드러진다는 말이다. 둘째, 그럼에도 2장 전체는 교회의 공중예배나 교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판단하는 점이다. 1-7절과 8-15절에 소주제의 구분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중예배나 교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단 구분과 주제 이해에 몇 가지 의문에 제기된다. 첫째는 먼저 8-15절 문단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권면의 분량 분배에 균형이 깨져있다는 점이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8절 한 절만 나오고, 여자들에 대해서는 9-15절로 여섯 절이나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저자가 진짜 공중예배에서의 남녀의 모습과 역할이라는 대칭 구도로 8-15절을 썼다는 판단에 의심이 들게 한다.²⁷⁾

24) Marshall, *The Pastoral Epistles*, pp. 30, 415-17, 436-37.

25) Mounce(「목회서신」, p. 313)는, 8절이 9-15절에 속하고 2-7절에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 구원 주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이유로, 1-7절의 주제를 구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8절은 1-7절에 속하며 구원 주제는 기도 주제 안에 포함되기에, 1-8절 주제는 중보기도 주제라 보는 것이 낫다.

26) Mounce, 「목회서신」, pp. 6, 310, 313-14, 344, 359-62.

27) 물론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이 8-15절 문단의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자는 오히려 여성

두 번째 고민은 이 불균형의 문제가 2:9의 ‘이와 같이’라는 접속부사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의 권면 내용과 이어지는 ‘권면 내용’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 만일 8-15절이 한 문단이고 9절의 ‘이와 같이’가 단순히 남녀 대칭을 염두에 둔 권면이라면, 8절에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권면이 9-15절에서 여자들에게 준 권면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자들에게 준 권면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있다. 다시 말해, 8절의 권면 내용은 ‘기도’이지만, 9절 이후 권면은 이와는 다르게 ‘행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권면 내용이 달리 등장하는 점이 2:9의 ‘이와 같이’라는 접속부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²⁸⁾ 만일 ‘이와 같이’라는 접속부사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이 접속어 앞뒤 권면내용의 일관성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고, 그런 고민은 자연히 8절과 9-15절의 남녀 대칭 구도에 의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8절의 ‘그러므로’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새로운 방향의 고민으로 가게 한다는 점이다. 남자들에게 준 권면(즉 8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된다. 이는 8절 권면이 앞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됨을 암시한다. 9절의 접속사 ‘이와 같이’가 8절과 9-15절의 권면 내용을 대칭적으로 잘 연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8절의 접속사 ‘그러므로’가 8절과 그 앞 절 내용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면, 9-15절이 단순히 8절과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8절 앞의 절들을 포함한 문단(1-8절)과 대칭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9절의 ‘이와 같이’ 전후에 나타난 권면은 분량 면에서도 적절한 균형(예컨대, 1-8절과 9-15절의 분량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8절의 ‘그러므로’는 8절을 9-15절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서, 동시에 그 앞 문단(1-7절)과 더

권면을 구별된 한 문단으로 (즉 9-15절을 다른 한 문단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8) Marshall(*The Pastoral Epistles*, pp. 30, 436-37)은 여기의 남성(8절) 여성(9-15절) 단락(즉, 2:8-15)이 ‘기도’ 주제로 통합된다고 말하지만, 9-15절에 기도 권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은 너무 자명하다.

깊이 연결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점에서 주제의 일관성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대두된다. 8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는 기도인데, 이는 1-7절에 기도 주제가 시종일관 흐르는 사실과 잘 어울린다. 즉, 1-7절과 8절이 매우 잘 연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8절을 9-15절에 연결된 문단으로 꼭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8절을 1-7절과 연결하여, 1-8절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장을 1-8절과 9-15절 문단으로 나누는 구성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틀에서 9절의 접속사 ‘이와 같이’를 재고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당연히 ‘이와 같이’가 연결하여 대칭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2.2. 디모데전서 2:1-8과 2:9-15

2장을 1-8절과 9-15절로 구분하는 시각은 사실 본문의 여러 특징을 잘 아우른다.²⁹⁾ 1-8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권고하는 문단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권면하는데, 이런 중보기도는 사실 사역자 디모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시 예배의 공중기도는 남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바울은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권면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 8절에서 그 권면의 구체적 실현으로 남자들이 공중기도를 적절히 잘 감당하라고 권면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8절의 ‘그러므로’는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기도의 내용과 원리를 잘 설명했으니, 그러므로 실제 공중기도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남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8-15절에서 남녀 역할을 대칭적으로 말하려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1-7절에서 길게 설명해 온 기도 주제를 이제 8절에서 실제 공중기도를 언급하며 마무리하

29) Guthrie(*The Pastoral Epistles*, pp. 63, 7, 84)는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문단 구성의 특징과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한 채,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전통적 이해의 한계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보인다.

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절의 ‘그러므로’는 8절을 1-7절과 연결하고, 자연히 1-8절이 한 문단이 된다.³⁰⁾

이어지는 9-15절은 여자의 행실 권고 문단이다. 이 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바른 행실을 다룬다. 9절이 여자의 행실을 언급하며 시작하는데, 마지막 15절도 여자의 행실을 말하며 마무리한다. 9-12절은 여자들이 바른 행실을 보이라는 권면을 밀하는데 먼저 적극적 측면에서 권면하고(9-10절) 이어 소극적 측면에서 권면한다(11-12절). 그리고 13-15절에서는 왜 그렇게 바른 행실을 보여야 하는지를 소극적 측면에서 제시하고(13-14절) 이어 적극적 측면에서 설명한다(15절). 이렇듯 9-15절은 여자의 바른 행실에 대한 권면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단 이해에 중요하게 고려할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9절의 접속부사 ‘이와 같이’가 어떻게 앞뒤 문단을 연결하는가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1절의 접속사 ‘그러므로’가 어떻게 2장 전후를 연결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미 앞(2.1)에서 언급했듯이 8절의 기도권면은 9-15절의 권면과 ‘이와 같아’라는 접속부사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조화가 1-8절과 9-15절의 연결에서 극복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1-8절의 나타난 기도권면은 9-15절 권면과 표면적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8절이 기도권면이고 9-15절이 행실의 권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적 주제를 넘어서 있는 이면적 주제 흐름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1-8절은 단순한 기도권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서 기도의

30) Mounce(「목회서신」, p. 361)도 이런 문단의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이 가능성을 채택하지 않는다. 1) 기도 주제는 1-7절과 8절에 진정한 관심이 아니다. 2) 1절의 οὐν(‘운’, ‘그러므로’)으로 시작된 문단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기에 8절의 οὐν(‘운’, ‘그러므로’)도 새로운 논의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3) 8절은 9-15절의 기본 주제인 교회의 혼란방지 주제를 공유한다. 하지만 Mounce는 1절과 8절의 οὐν과 9절의 ὡσαύτως(‘호사우토스’, ‘이와 같이’)가 이끄는 논리의 일관성 문제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고, 1-8절과 9-15절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지 않다.

대상과 태도와 이유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권면이다. 그리고 그런 대상과 태도와 이유가 8절에서 구체적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했다. 즉, 남자들은 분노를 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툼이 어쩌면 당연히 예견되지만 다툼의 모습을 극복한 채로 기도해야 하며, 오히려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받는다. 따라서 9절의 ‘이와 같이’라는 접속부사는 ‘기도’라는 표면적 주제와 연결되기보다 ‘기도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모습’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가 내다보는 동질성은 양쪽 권면의 뿌리에 흐르고 있는 ‘태도의 동질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1-8절은 모든 사람의 중보기도에 바람직한 태도로 기도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제 9-15절에서도 그런 바람직한 태도가 여자들의 행실에서도 요구된다는 말이다.³¹⁾

이런 점과 관련하여 1-8절 문단을 이끄는 1절의 접속사 ‘그러므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절 문단의 서두가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말은 이 문단의 성격의 어떤 부분이 1장의 권고와 어떤 면에서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알려준다. 1장은 디모데가 대적자들과 부딪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1:3-11). 그때 저자는 디모데가 그 대적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1:18-19)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의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나아오지만, 그들을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1:12-20). 문제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바른 태도와 모습으로 승리할 것을 요청한다. 저자는 바로 이런 싸움의 모습과 태도를 2장의 권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듯 보인다.³²⁾

이런 측면에서 2:1의 ‘그러므로’는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
- 31) 바로 이런 점에서 2:1-8과 2:9-15을 굳이 공중예배라는 틀 안에 가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문단이 함께 하도록 만든 중요한 주제는 공중예배가 아니라, 대하기 어려운 타인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 32) 이런 싸움의 모습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믿음의 선한 싸움’(6:12)이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나타난다.

이제 디모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이런 선한 싸움의 모습은 2:9의 ‘이와 같이’라는 접속부사로 9-15절 문단까지 연결되어간다. 따라서 2:1(또한 2:8)의 ‘그러므로’와 2:9의 ‘이와 같이’는 1장에서 언급한 ‘바른 싸움의 태도 모습’이 결국 2장 전체에도 흐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논리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결에는 모두 선한 싸움이라는 ‘태도의 동질성’을 염두에 두고 쓰인다.

3. 디모데전서 2:1-8: 교회의 중보기도(믿음의 선한 싸움 1)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2장에서 다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과의 부딪힘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2:1-8에서 저자는 당시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위협이 되고 있는 세력과의 이슈를 고민한다.

3.1. 본문 이해

1-8절에서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모든 사람’(2:1, 4, 6)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2:2)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가 중보기도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대상이다. 바울은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 이 두 그룹의 등장과 관련하여 에베소교회의 배경은 좀 더 정확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3.1.1. 본문의 배경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무르며 에베소교회가 자라는 데 많이 기여했다(참조 행 19:1-20). 그 후 다시 에베소교회를 방문하였고, 떠나면서는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하도록 남겨두었다(딤전 1:3). 디모데를

남겨 둔 이유 중 하나는 거짓교사들이 에베소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에베소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었기에(참조. 딤전 3:14),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그곳의 거짓교사와 부딪히며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막아야 했다(딤전 1:3-11). 그런데 그들과 부딪힐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었다. 그들과 싸우며 책망해야 했지만 데모데 자신은 선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며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를 들면서(딤전 1:12-17), 디모데도 유사하게 거짓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감당할 것을 요청한다(딤전 1:18-20). 이 대결은 디모데 혼자만 직면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베소교회는 지금 거짓교사 세력과의 갈등하며 대결하는 자리에 있었다.

에베소교회는 또한 로마제국과 권력자들로부터 압박이나 펉박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의 자리에 있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났지만(참조 행 19:23-34), 에베소의 서기장은 이 소동을 막으며 바울과 교회에 대한 반대를 무마해주었다(참조 행 19:35-40). 사실 로마제국은 초기의 교회 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기에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연히 교회는 로마제국으로부터 특별한 펉박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변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신)의 아들’의 복음을 전했고(참조 롬 1:2-4; 갈 1:15-16), 로마제국은 로마황제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전파하고 있었기에, 로마제국이 교회를 오해하여 억누르고 펉박할 잠재적 가능성은 남아있었다.³³⁾ 바울은 이런 잠재적 펉박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교회가 가능하면 권력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하였다(참조. 롬 13:1-7; 딤 3:1-2). 에베소교회도 이런 미래의 잠재적 펉박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에베소교회는 로마제국의 주장에 맞서야 하면서도 동시에 그 권력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3) 참조 이진섭, 「빌립보서」, pp. 110-11; 「테살로니가전후서」, p. 27; Scarre, 「로마황제」, pp. 19-20.

3.1.2. 본문의 권면

이런 배경이 2:1-8의 기도 권면에 녹아들어 있다.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가 대적자와 선하게 싸워야 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이어 2:1-8에서 교회 공동체가 불편한 사람들과 어떻게 선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권면하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은 2:1의 ‘그러므로’로 이 두 문단을 연결하며, 대결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2: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2:2) 기도하라는 권면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대결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 반대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목표로 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2:1) 기도하라는 말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딪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에베소교회의 상황에서는 당장 지금 앞에 있는 거짓교사들까지 포함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2:2) 기도하라는 말은 미래에 펍박자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선인과 악인에게까지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참조. 마 5:45) 반대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선한 싸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처럼 바울은 반대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싸움의 기도를 권면한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공중예배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딤전 2:8) 바란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교사들이 문제라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여 해하고자하는 마음으로 부딪쳐서는 안되며, 또 펍박할지 모르는 권력자들과 대립각을 세워 폭력의 대결로 나가서는 안된다.³⁴⁾ 오히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선한 싸움의 기도를 해야

34) 참조. 박익수, 「디모데전·후서」, pp. 108-110.

한다. 훼방자고 팝박자인 바울을 인내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참조. 딤전 1:13).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심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딤전 1:1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도를 적절히 감당해야 한다. (자연히 8절에 남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9-15절의 여자들과 대비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기도해야 하는 책무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가 반대편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임을 2:1-8에서 강하게 드러낸다. 교회의 중보기도는 선한 싸움의 중요한 무기이다.

3.2. 난제 해결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난제 두 가지, 즉 1) 중보기도의 성격과 2) 모든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볼 차례다.

3.2.1. 기도의 성격

저자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성격은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모습이다. 갈등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이 바르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의 거짓교사들을 거부하고 막아야 하지만,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야 한다. 그 선한 방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를 억누를지 모를 권력자들에게도 무조건 싸우려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2:1의 ‘그러므로’는 1-8절의 기도가 선한 싸움의 기도라는 점을 잘 알려준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2: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2:2) 기도하라는 표현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뜻을 함의한다. 갈등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표면적으

로는 그래야 공동체와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며(2:2b), 궁극적으로는 대적자와 반대자들을 구원하려하기 때문이다(2:3-4). 중보기도가 진정 내다보는 것은 거짓교사와 권력자들이 참 신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될 때 참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될 때 거짓교사 문제는 진정 해결되고 공동체는 평안해진다. 또한 제국 권력자들이 참 신자가 될 때 제국의 펩박은 보류되고 교회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자들에 대한 공중기도의 권면은 이런 선한 싸움의 기도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대적자와 반대자들에 대해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고 거룩한 싸움의 기도를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대적자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권면한 중보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며 일일이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성을 말한 본문이 아니라, 반대자를 포함할 필요성을 말한 본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권면은 정권이나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 대적자나 반대자들도 잘 회복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결국 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이 권면은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해주는 기도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한국형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본문으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예배 때에 기도로 국가의 정책이나 권세자의 권력을 지지하려는 시도도 이 본문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3.2.2.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 논란도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반대자까지도’라는 합의로 쓰고 있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은 곧 대적자와 반대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바란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즉, 반대자들까지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

니라.’(2:4)라는 표현은 저자의 이런 의도를 잘 드러낸다. 거짓교사나 이방 권력자들은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이런 점을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미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예로 이런 생각을 언급했다. ‘죄인’(반대자)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을 언급하며 그 죄인의 구원을 말했다(1:15).³⁵⁾ 따라서 보편구원론이나 선택구원론을 따지는 것은 이 본문에서 무의미하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수도 사실 논란이 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대적자, 혼방자,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뜻을 전할 뿐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한 것이지, 속죄의 보편성이나 제한성을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 본문으로 보편속죄나 제한속죄를 논의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4. 디모데전서 2:9–15: 아내의 바른 행실(믿음의 선한 싸움 2)

이제 선한 싸움의 태도 주제가 2:9-15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하며 나머지 남은 두 개의 난제에 어떤 답을 제공하는지를 살필 차례다.

4.1. 본문 이해

앞(2.1.)에서 살폈듯이 2:9의 접속부사 ‘이와 같이’는 8절의 ‘남자’와 9-15절의 ‘여자’ 대상의 대비로만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1-8절의 ‘기도’ 주제와

3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 개역개정)

9-15절의 ‘행실’ 주제의 연결로 보기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양쪽을 연결하는 공통요소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한 싸움의 태도라는 주제가 1장부터 2:1-8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태도의 주제가 2:9-15에도 이어진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생긴다. 바울은 이 새 문단에서 또 다른 갈등의 대상에게까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권면한다. 1-8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거짓교사와 잠재적 팝박자에 대항하여 중보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그 중보 공중기도의 책임을 맡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회 여자들은 또 다른 갈등의 대상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유사하게 선한 행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9-15절은 여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런 대처방안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관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여자들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대상의 실체가 본문 이해의 결정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상은 다름 아닌 여자들의 남편들이라 추정된다.³⁶⁾

당시 에베소교회에서 여성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판단에 한편으로 도움을 준다. 에베소는 아데미(Artemis,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고(참조 행 19:24, 27), 여성 중심의 사제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³⁷⁾ 이는 자연히 여성 사제의 지배와 권위에 복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종교 분위기에서 교회에 들어 온 여신자들은 기존 아데미 종교의 부작용으로 남편들을 이끌고 가르치려는 분위기를 보일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다. 특별히 여자만 홀로 교회에 온 여신자들은 남편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가르치려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신도들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고대사회의 권위적인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역효과를

36) 참조 Prohl, *Women in the Church*, pp. 31-32; Barrett, *The Pastoral Epistles*, pp. 55-56; Powers, ‘The Application of 1 Timothy 2:8-15,’ pp. 55-59; Hanson, *The Pastoral Epistles*, p. 72.

37) 아데미는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 야생 동물의 수호 여신으로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질 뿐 아니라 출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다. 에베소에서는 강한 여성의 분위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냈을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남편들이 오히려 믿는 아내를 억압하거나 펑박하게 하는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교회의 여자들에게 남편들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정숙’하고 바른 행실로 처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면한다.³⁸⁾

2:9-15에 나타난 몇 가지 점들은 이런 시각에 중요한 증거를 보태준다. 첫째, 개역개정 12절에 ‘남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네르’(ἀνηρ)는 ‘귀네’(γυνή, ‘아내’/‘여자’)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 ‘남자’를 뜻하기 보다는 보통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디모데전서에서 시종일관 이렇게 사용되었고(딤전 3:2, 12; 5:9),³⁹⁾ 다른 바울서신이나 신약성경에서도 그 현상은 두드러진다(롬 7:2; 고전 7:3, 4, 10, 11, 13, 14, 16, 39; 앱 5:22, 23, 24, 25, 28, 33; 딸 1:6; 벤전 3:1, 7 등).⁴⁰⁾

둘째, 12절 바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 예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13-14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예는 12절을 뒷받침하려고 쓰였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이다. 신약성경에 아담이 홀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로 쓰인 적은 있지만(롬 5:14; 고전 15:22, 45), 아담과 하와가 각각 남자와 여자의 대표로 등장한 적은 없다. 이 두 사람의 동반 등장은 부부의 예로 봄이 적절하다(참조. 앱 5:31).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어떠한 관계로

38) ‘정숙함’(σωφροσύνης)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오직 3번만(행 26:25; 딤전 2:9, 15) 등장한다. 이 단어는 행 26:25에서 바울이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말할 때 사용되었다. 이런 용례로 볼 때 이 단어는 잘못된 종교에 심취하여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과는 달리 정상적이고 바르게 판단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 단어를 디모데전서 2:9-15에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에베소교회의 여신도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과는 달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기를 권면한다.

39) 디모데전서에서 ἀνηρ(‘아네르’)는 모두 5회 사용되었는데 γυνή(‘귀네’)와 함께 쓰인 경우가 4회(2:12; 3:2, 12; 5:9), 단독으로 쓰인 경우가 1회이다(2:8).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남자’(2:8)의 뜻으로 쓰였고, γυνή(‘귀네’)와 함께 쓰인 세 번의 경우는(3:2, 12, 5:9) ‘남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개역개정). 그렇다면 γυνή(‘귀네’)와 함께 쓰인 나머지 한 번의 경우(2:12)를 ‘남편’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40) 고린도전서 11장의 용례는 예외적이다.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셋째, 여자들이 외모로 안목을 끌려하지 말고 정절과 선행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다. 9절과 10절에 묘사된 여자의 모습과 행실은 외간(外間) 남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묘사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부부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울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신자가 남편에게 신뢰를 받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 듯 보인다.

넷째, 더구나 10절의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라는 표현은 여자의 착한 행실을 보는 대상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추측을 물씬 풍기게 한다. 그렇다면 9-10절 내용은 여자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 외간 남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가정하기보다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9-15와 베드로전서 3:1-6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디모데전서 2:9-15이 아내와 남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⁴¹⁾ 베드로전서 3:1-6는 디모데전서 2:9-15과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⁴²⁾ ① ‘귀네’(γυνή)와 ‘아네르’(ἀνὴρ)라는 표현이 공히 나올 뿐 아니라(벧전 3:1; 딤전 2:12), ② 아내[여자]의 순종(벧전 3:1, 5; 딤전 2:11, 12)과 아내[여자]의 정결한 행위(벧전 3:2; 딤전 2:9-10, 15)가 마찬가지로 언급되고, ③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치장을 하는 모습(벧전 3:3; 딤전 2:9) 등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등장한다. ④ 더구나 두 본문 모두 권면의 강도를 높이려고 구약성경에 나타난 부부의 예, 즉 아브라함-사라의 예(벧전 3:6)와 아담과 하와의 예(딤전 2:13-14)를 제시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권면에 나오는 ‘귀네’와 ‘아네르’의 관계가 동질의 것임을 눈치 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1-6은

41) Huguenberger('A Survey of Approaches to 1 Tim 2:8-15,' pp. 341-60)는 이런 병행을 의미있게 관찰한다.

42) 더 큰 틀에서 보면 딤전 1:18-19; 2:1-2; 2:9-15은 각각 벧전 2:11-12; 2:13-14; 3:1-6과 유사하다. 이 두 서신의 문단들은 서로 대칭되는 특징을 지닌다.

아내와 남편사이의 (믿지 않는 남편도 포함한) 관계를 말한 것이 분명함으로, 디모데전서 2:9-15에 나타난 ‘귀네’와 ‘아네르’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디모데전서 2:9-15의 권면은 에베소교회의 여신자가 남편(특히 믿지 않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여 그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려하지 말고 오히려 순종의 자세로 있으며 바른 행실의 삶을 실천하면서 선한 짜움을 감당하라는 권면이다.

4.2. 난제 해결

그러면 이제 남은 두 가지 난제, 즉 1) 여성사역의 가부 여부와, 2) 여자의 해산과 구원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 차례다.

4.2.1. 여성 사역

2:11-12은 여성사역 금지 본문이 아니다. 2:9-15은 에베소교회의 여신자들이 잠재적 갈등 관계에 있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분위기에서 교회의 여신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점을 말한다. 갖가지 외적 치장으로 남편에게 보이려하거나 믿지 않는 남편을 자기가 가르쳐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행동은 지양하도록 권면한다. 오히려 여신자들은 바른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점점 나아오게 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권면을 이 문단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바울서신 본문들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 본문, 특히 11-12절로 교회에서의 여성사역을 금지케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4.2.2. 해산의 구원

마지막 남은 난제는 15절로 말미암아 등장한 여자의 해산과 구원문제이다. 앞(1.4)에서 살핀 여러 다양한 해석은 본문의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신도(女信徒) 아내들이 감당할 ‘선한 싸움의 모습’이란 시각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15절은 아내들이 바르고 적절한 행실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권위적 남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는 말이다. 이 판단에는 여섯 가지 점이 차곡차곡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할 사항은 디모데전서 2:9-15과 베드로전서 3:1-6의 유사성이다. 이미 앞(4.1)에서 이 두 문단의 유사성은 특별하다고 살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1은 아내의 바른 행실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남편을 믿음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내가 바르게 행하는 삶의 모습, 곧 정결한 행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그 남편을 믿음의 길로 이끌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보다도 정결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유사하게 디모데전서 2:9-15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2:11) 머리나 금이나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바른 행실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2:9-10, 15). 특별히 2:15은 여자들(아내들)의 거룩한 행실을 거론하며 해산과 구원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 절은 베드로전서 3:1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바른 행실이 비신자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의 길, 곧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해산의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문맥에서 반대자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1장에서 저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적대자이자 대적자인 바울을 인내하고 고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한 후(1:13-15), 이렇게 대적자를 이기는 방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다(1:18-19). 2장에서는

교회가 이런 선한 싸움의 모습으로 살아 그 갈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한다. 2:1-8은 바른 중보기도의 싸움이 거짓교사나 불신자 권력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2:9-15에서 아내의 거룩하고 바른 삶의 행실이 (즉, 아내들이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비신자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전체 흐름에서 자연스럽다. 다음 도표는 이런 연관관계를 표현한다.

| | 선한 싸움 | 반대자의 구원 | |
|---------|-----------|---------------|--------------------|
| 1:12-16 | 예수님의 인내 | \Rightarrow | 바울의 구원 |
| 2:1-8 | 교회 중보기도 | \Rightarrow | 거짓교사, 비신자 권력자들의 구원 |
| 2:9-15 | 아내의 바른 행실 | \Rightarrow | 남편의 구원 |

셋째, 디모데전서 2:15 자체가 여자(아내)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5절에서 구원을 얻는 주체와 서술어는 3인칭 단수('소쎄세타이', σωθήσεται, '그/그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he/she will be saved')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번역본들과 주석가들은 이 주체가 여성이라고 쉽게 단정하지만(예컨대, 개역개정, 공동번역, NRSV, NIV; Stott, Mounce, Towner, 박익수 등),⁴³⁾ 2:15의 헬라어 구문은 이런 단정을 쉽게 지지하지 않는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로 쓰였다.

| | |
|------------|--|
| 2:15a(주절) | 그러나 그/그녀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해산으로 σωθήσεται δὲ διὰ τῆς τεκνογονίας, |
| 2:15b(종속절) | 만일 그녀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ἐὰν μείνωσιν ἐν πίστει καὶ ἀγάπῃ καὶ ἀγιασμῷ μετὰ σωφροσύνης |

43) Stott, 「디모데전서」, pp. 114-15; Mounce, 「목회서신」, pp. 421, 424, 426; Towner, *Timothy*, p. 233; 박익수, 「디모데전·후서」, pp. 128-29.

주절의 주어와 술어가 3인칭 단수인데 반해, 종속절의 주어와 술어는 3인칭 복수('메이노신', μείνωσιν, '그들이 거한다')로 등장한다. 여기서 '그들은' 문맥상 '그녀들(아내들)'임이 분명하다.⁴⁴⁾ 그런데 이 종속절의 주어(그녀들)가 복수라는 점이 주절의 주어를 '그녀'라고 보기 어렵게 한다. 만일 저자가 주절의 주어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썼다면, 이어서 종속절의 주어를 쓸 때 자연스럽게 단수형으로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절의 주어를 남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저자는 종속절의 주어와 술어를 쓸 때 남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자는 종속절의 주어와 술어를 주절과는 다르게 복수 형태로 씀으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를 차별화시켰다. 결국 종속절의 주어는 '그녀들'(즉 '아내들')이고, 주절의 주어는 '그'(즉, '남편')가 된다.⁴⁵⁾ 더구나 9-14절에서 남편(남자)은 '복수'로 등장한 적이 없고, 오직 12절에서 단수로만 등장한다. 반면 9-14절에서 일차적으로 권면을 받는 대상, 즉 9-10절의 아내들은 복수로 등장한다. 이런 대체적 흐름이 15절의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결정에 반영된 듯 보인다. 결국 15절은 아내들의 정숙한 신앙의 삶이 '남편'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 된다.

넷째, 2:13-15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대비 구도가 15절 전반부(주절)의 주어가 '그'(남편)임을 또한 알려준다. 13, 14절은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대비로 쓰였다. 그렇다면 이어서 쓰인 15절의

44) 종속절의 주어 '그들'이 남편과 아내를 포함한다거나(Brox, *Die Pastoralbriefe*, p. 137) 자녀를 포함한다는 견해(Jeremias, *Timotheus*, p. 22; Houlden, *The Pastoral Epistles*, pp. 72-73; Johnson, *Letters to Paul's Delegates*, p. 133)가 있지만, 2:15의 '정숙함'(σωφροσύνης)이라는 단어가 2:9에서 아내(여자)의 행실로 나타난 점을 보면 여기 2:15의 종속절의 주어가 '그녀들'(즉, 아내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45) 주절에 '그 해산으로'(διὰ τῆς τέκνογονίας)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주절의 주어가 꼭 여성이 될 필요는 없다. '해산'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다시 말해, 주어의 동작으로 나타나지 않고) 명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산이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고 구원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산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해신하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절의 주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즉 남편이 될 수 있다. 아내가 영적 해산의 수고로 그(남편)가 구원 얻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반부(주절)와 후반부(종속절)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의 대비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각 절의 | 전반부 | 후반부 |
|------|-----|----------|
| 13절: | 아담 | - 하와 |
| 14절: | 아담 | - 아내(여자) |
| 15절: | 그 | - 그녀들 |

만일 저자가 이 대비를 깨고 15절 전반부(주절)의 주어를 아내라고 쓰고자 했다면, ‘귀네’(γυνή, ‘아내/여자’)라는 단어를 여기에 주어로 넣었을 것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남편(남성)과 아내(여성)의 대비를 이어가고 있기에, 15절에서 저자는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로 특정 명사(즉, ‘아내로’와 ‘귀네’)를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 명사가 없는 한 기준의 흐름 패턴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더 나아가 2:14과 2:15이 보여주는 의미의 대비 패턴, 즉 죄와 구원의 대비 패턴이 15절의 구원이 남편에 대한 것임을 가늠케 한다. 14절은 죄로 이끄는 영향력을 말하고, 15절은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을 말한다. 14절에서는 아내(하와)의 잘못된 행동과 죄로 결국 아담이 잘못 된다. 반면 15절에서는 그녀들(아내들)의 정숙한 행실로 그(남편)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처럼 14, 15절은 아내의 영향력이 역으로 나타남을 보인다. 14절에서는 하와가 죄를 지어 남편 아담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말했다면, 저자는 이제 15절에서 그 역작용을 말하려 한다. 15절 서두에 있는 ‘그러나’(‘데’, δέ)라는 접속사는 이러한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이제 아내들이 제대로 정숙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한다면, 남편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4절: 아내의 잘못 ⇒ 아담의 잘못된 결과
15절: 그녀들(아내들)의 바른 행실 ⇒ 그(남편)의 구원

여섯째, 마지막으로, 바울서신에 나타난 해산의 유비 또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바울서신에서 해산의 유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개념으로 연결시킨 또 다른 분명한 예는 갈라디아서 4:19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즉, 참 구원을 얻는 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한다. 이때도 ‘해산’을 자신의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자신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끔찍한 고통일지라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해산 고통의 감내자는 바울이지만, 그 고통의 수혜자는 구원받는 신자이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15의 경우도 해산 고통의 감내자는 아내이지만, 그 고통의 수혜자는 남편이다. 믿는 아내가 권위적인 비신자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고통의 결과는 놀랍다. 마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같이 남편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의 태도가 2장에서도 여전히 내적 주제로 흐른다는 시각을 견지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2:15의 난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2:15은 더 이상 미궁의 난제가 아니다.

나가는 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반대자, 대적자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지하도록 권면한다. 디모데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문제의

사람들과 제대로 부딪히며 바르게 싸워야 함을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교사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갈등할 때 그들의 참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기도의 바른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들은 그 중보기도의 싸움에 앞장서야 한다. 분노하여 다투기보다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애베소교회의 여신도들은 권위적인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을 주관하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행실을 바르게 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맛보게 해야 한다. 외모보다 행실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아내가 정숙함의 신앙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 믿음 없고 권위적이던 남편도 구원의 길을 걸을 기회가 생긴다. 물론 아내가 감당할 수고는 크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길이 최선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적과 갈등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 해결책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이며, 반대자(원수)까지 사랑하는 길이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승리로 확인해주셨다. 이는 쉽지 않은, 쉽게 할 수 없는 싸움이다. 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다. 디모데전서 2장은 이런 점을 아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難題)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실행하기 쉽지 않은 사랑의 난제가 분명한 장이다. 싸움의 고수만이 이 선한 싸움, 사랑의 난제를 실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 박익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진섭, 「데살로니가전후서: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사역」, 성경목상주석; 서울: 홍림, 2011.
- 이진섭, 「빌립보서」, 성경문맥주석, 서울: 홍림, 2012.

- Hendriksen, W.,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디도서」(*Commentary on 1 and 2 Timothy and Titus*), 나용화 역, 서울: 아가페, 1983 (1959).
- Moo, D.J., 「로마서」(*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손주철 역, 서울: 솔로몬, 2011.
- Mounce, W.D., 「목회서신」(*Pastoral Epistles*), WBC 46, 서울: 솔로몬, 2009.
- Scarre, C., 「로마 황제」(*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윤미경 역, 서울: 갑인공방, 2004.
- Stott, J.R.W., 「디모데전서·디도서 강해: 진리를 굳게 지키라」(*The Message of 1 Timothy and Titus: Guard the Truth*), BST, 김현희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8 (1996).

2. 외국어 문헌

- Barclay, W., *The Letter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he Daily Study Bible, 1956; revise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5.
- Barrett, C.K., *The Pastoral Epistles*, NCB, Oxford: OUP, 1963.
- Barron, B., 'Putting Women in Their Place: 1 Timothy 2 and Evangelical Views of Women in Church Leadership.' *JETS* 33 (1990), pp. 451–59.
- Brox, N., *Die Pastoralbriefe*, RNT 7; 4th edn, Regensburg: Pustet, 1969.
- Ellicott, C.J., *The Pastoral Epistles of St Paul*, Longmans, 1861; 5th ed., 1883.
- Fairbairn, P.,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 I and II Timothy, Titus*, 2nd edn. Grand Rapids: Zondervan, 1956.
- Fee, G.D., *1 And 2 Timothy, Titus*, NIBC, Peabody: Hendrickson, 1988.
- Guthrie, D., *The Pastoral Epist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NTC, 14,

- Leicester/Grand Rapids: IVP, 1957, IVP, 2nd edn, 1990.
- Hanson, A.T., *The Pastoral Letters: Commentary on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and the Letter to Tit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on the NEB, Cambridge: CUP, 1966.
- Houlden, J., *The Pastoral Epistles: I and II Timothy, Titus*, London: SCM, 1989.
- Hugenberger, G.P., ‘Women in Church Office: Hermeneutics or Exegesis? A Survey of Approaches to 1 Tim 2:8–15.’ *JETS* 35 (1992), pp. 341–60.
- Jebb, 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1 Tim 2:15.’ *ExpTim* 81 (1969), pp. 221–22.
- Jeremias, J., *Die Briefe an Timotheus und Titus*, NT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Jewett, P.K., *Man as Male and Femal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5.
- Johnson, L.T., *Letters to Paul's Delegates: 1 Timothy, 2 Timothy, Titus*,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Keener, C.S., *Paul, Women, and Wives: Marriage and Ministry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MA: Hendrickson, 1992.
- Knight, G.W., ‘*A Y Θ E N T E Ρ* in Reference to Women in 1 Timothy 2:12.’ *NTS* 30 (1984), pp. 143–57.
- Kroeger, R. and C. Kroeger, *I Suffer not a Woman: Rethinking 1 Timothy 2:11–15 in Light of Ancient Evidenc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Lock, W.,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 II Timothy and Titus*, Edinburgh: T. & T. Clark, 1924.
- Marshall, I.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T Clark, 1999.
- Moule, C.,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2d edn.; Cambridge: CUP, 1959.
- Payne, P.B., ‘Libertarian Women in Ephesus: A Response to Douglas J. Moo’s Article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Trinity Journal* 2 (1981), pp. 169–97.
- Powers, B.W., ‘Women in the Church: The Application of 1 Timothy 2:8–15’, *Interchange* 17 (1975), pp. 55–59.
- Prohl, R.C., *Women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1957.

Spicq, P.C., *Saint Paul: Les Épitres Pastorales*, 2 vols., Étuds Biblques Paris: J. Gabalda, 1969.

Towner, P.H.,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6.

Williams, D., *The Apostle Paul and Women in the Church*, Ventura: Gospel Light Publications, 1977.